

6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200일선 돌파`..다우 0.2%↑	주택판매지표가 예상밖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도움을 주어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감.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9.43포인트(0.22%) 상승한 8,740.8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2포인트(0.44%) 오른 1,836.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87포인트(0.2%) 상승한 944.74를 각각 기록했다. S&P 500 지수가 근 1년반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점이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들이며 시장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했고 장중 발표된 미국의 4월 잠정주택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음.
S&P 500 지수 200일 이평선 상향 돌파	S&P 500 지수가 장기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200일간의 주가를 평균해 이은선)을 상향 돌파, `강세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S&P 500 지수는 전날 마감지수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섰으며 S&P 500 지수가 200일선을 회복한 것은 무려 523일만에 처음임.
4월 잠정주택판매 `7년래 최대폭` 증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이날 4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90.3을 기록, 전월 84.6에 비해 6.7%나 급증했다고 밝혔음. 4월 잠정주택판매 증가폭은 2001년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3.2% 증가해 미국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날게 함. 또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상회한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4월 잠정주택판매가 각각 0.5%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음.
국제유가 숨고르기..7일만에 소폭 하락	국제유가가 엿새 연속 오르는데 따른 부담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소폭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가격은 3센트 하락한 68.55달러로 마감했음. 미국의 4월 잠정주택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웠지만, 연중 최고치까지 상승한 부담으로 7일만에 상승세를 멈춰섰음.
日 MUFJ, 모간스탠리에 420 억엔 추가 투자	MUFJ는 이미 지난 해 가을 모간스탠리 우선주 90 억달러 어치를 인수. 보통주 전환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모간스탠리는 2일(현지시간)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 상환을 위해 22 억달러(2,100 억엔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했고, MUFJ는 모간스탠리와의 지분 제휴 최소 기준인 20%이상의 지분을 유지를 위해 모간스탠리 신주 가운데 5분의 1 가량을 매입할 계획.

제목	주요 내용
도요타, 5월 美 판매량 40% 급감	도요타는 2일(현지시간) 5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동기대비 40.7% 감소한 15만 2,583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판매가 전년동기 16만 8,942대에서 9만 6,650대로 줄었음. 경트럭 판매는 8만 8,464대에서 5만 5,933대로 감소.
윤증현 "수출여건변화 대응책 만들어라"	윤증현 장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6월은 2분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라 각 경제 분야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출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 수출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그는 "환율,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 이같은 수출 환경에 대응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짜라"면서 "아울러 각 부처도 원자재와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음.
정부 "외환시장 복핵 영향 없어"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핵심험 직후인 지난달 25일 148bp(100bp=1%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음. 이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6일과 27일에도 148bp를 유지했고 이달 1일 현재 152bp 수준으로 올랐지만 이는 북한 변수가 아닌 환율과 금융시장의 수급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미래에셋자산운용, SK 네트워크 4대주주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특별관계자들이 지난 5월 말 SK 네트워크 지분 5.40%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1일 공시.미래에셋 계열 펀드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 5월 말까지 SK 네트워크(001740) 보통주 1,312만 5,620주를 장내 매수. 이로써 미래에셋은 투자 용도이긴 하지만 하나은행을 제치고 SK 네트워크 4대 주주로 부상.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장기 전망에 따라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